

영어포함어동사에 의한 조영번역에서 나서는 방법론적원칙

김 명 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외국어는 리해하는데 그칠것이 아니라 써먹을수 있도록 학습하여야 합니다.》

(《김정일전집》 제2권 197페이지)

외국어를 실지 써먹을수 있게 습득하자면 높은 외국어활용능력 즉 번역능력과 일상언어생활에서의 표현능력을 소유하여야 한다.

번역은 한 언어의 문장들을 등가성의 원칙에서 다른 언어의 문장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과정이다. 원문언어와 번역언어사이의 정확한 등가관계를 보장하는것이 번역의 기본요구로 된다.

원문언어와 번역언어사이의 등가관계는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총체적으로 원문언어의 문장들에 담겨진 진술내용이 그대로 번역언어의 진술내용으로 옮겨질 때 번역의 질이 보장되었다고 말할수 있다.

이 글에서는 영어포함어동사에 의한 조영번역에서 나서는 방법론적원칙에 대하여 분석하려고 한다.

첫째로, 조선어 《부사+동사》단어결합을 많은 경우에 영어포함어동사로 번역하여야 한다.

의미적측면에서 볼 때 동사는 과정적인 움직임들을 나타낸다. 동사의 과정성은 대상의 위치변화, 속성변화 등의 내용을 가진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의 움직임은 정도나 방식, 장소, 시간, 모양 등에서 달리 나타날수 있다.

어떤 대상의 움직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구체적인 성격에 따라 같은 움직임이라고 하더라도 명백히 구분된다. 《느릿느릿 걷는 행동》과 《성큼성큼 걷는

행동》은 《걷는다》는 의미에서는 같지만 성격에서는 다르다. 움직임의 성격을 특징짓는 정도나 방식, 장소, 시간, 비교, 소리, 방향, 모양 등이 바로 수식성이다.

움직임을 특징짓는 수식성의 의미는 매우 다양하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의 움직임이 각이한 조건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것만큼 움직임을 특징짓는 수식적인 의미도 다양하게 설정된다.

영어포함어동사들에는 움직임을 특징짓는 객관적인 현상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그것은 직관적으로 구별되는 구체적인 움직임의 현상들을 그대로 반영하여 동사를 만든것과 관련되어있다.

예: cohabit 같이 살다

comb 살살이 뒤지다

quibble 익살스럽게 말하다

drudge 수직수직 일하다

whisper 수군수군 말하다

우의 실패동사들은 과정성의 의미와 함께 움직임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자체의 의미속에 포함하고있으므로 방식의 의미를 가진 동사라고 볼수 있다.

예: abhor 몹시 싫어하다

astound 몹시 놀라게 하다

beseech 간절히 바라다

waste 점점 줄다

canker 서서히 파괴하다

우리 말에는 과정성만을 나타내는 동사와 수식성만을 나타내는 단어가 따로 있는 것으로 하여 단어들이 의미적으로 단순화되어있으나 영어에는 과정성과 수식성을 동시에 나타내는 동사들이 많다.

우리 말에서는 수식성이 부사나 부사처럼 쓰이는 명사들, 용언의 상황형이나 접속형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영어의 많은

동사들은 자체내에 우리 말의 수식적인 단어들(이 나타내는 의미까지) 내포하고있기때문에 《영어동사=수식적인 단어+조선어동사》라는 대응관계가 이루어진다. 즉 우리 말의 《부사+동사》, 《명사+동사》, 《동사+동사》, 《형용사+동사》의 단어결합이 나타내는 의미가 영어에서는 단어의 의미속에 양상적의미와 상징적의미가 내포되어있는 포함어동사에 의하여 실현된다.

례: 우리 말 《부사+동사》와 대응되는 영어동사

산들산들 불다 breeze, 능글능글 웃다 smirk

우리 말 《명사+동사》에 대응되는 영어동사

창으로 찌르다 spear, 주먹으로 치다 punch

우리말 《동사+동사》에 대응되는 영어동사

눈을 가늘게 뜨고 보다 squint, 때려서 엮어놓다 clobber

우리 말 《형용사+동사》에 대응되는 영어동사

멍하니 바라보다 gape, 어렴풋이 반짝이다 shimmer

조영번역에서는 두 언어의 동사에서 나타나는 민족적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만일 조선어단어와 영어단어사이의 대응관계를 1:1로 강제로 맞추려고 한다면 의미에서의 등가성을 보장할수 없게 된다.

례: 그들은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They dispersed by twos and threes in all directions.

우의 실례에서와 같이 조선어부사를 영어부사로, 조선어동사를 영어동사로 1:1의 관계로 번역할 때 조선어문장에서 표현되는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의미가 영어문장에서는 표현되지 않아 의미적으로 완전한 일치(가)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번역은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수 없다.

그러나 이 문장을 《They scattered in all directions.》로 표현하면 《scatter(뿔뿔이 흩어지다)》는 포함어동사에 수식성의 의미(즉 부사의 의미가 내포되어있으므로) 영어부사를 더 쓰지 않고도 전달하려는 내용을 전달하면서 영어어법에 맞는 문장으로 될수 있다.

번역자는 동사나 부사에서 나타나는 두 언어의 특성을 살려 조선어의 《부사+동사》결합을 영어포함어동사로 번역하는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례: 그는 입술이 새파랗게 질린채로 입술을 푸들푸들 떨기만 하였다.

He turned pale and pursed his lips.

우의 실례에서 보는것처럼 우리 말의 《부사+동사》결합을 등가성의 원칙에서 1:1로 대응시킨것이 아니라 영어포함어동사 purse를 리용한 간결한 구조로 우리 말의 부사에 해당하는 의미를 나타낼수 있다.

둘째로, 조선어부사의 섬세한 의미를 나타낼수 있는 영어포함어동사를 정확히 선택하여야 한다.

조선어에 부사가 발달되어있는것은 움직임이나 성질, 상태 등의 섬세한 차이를 명확히 구별하여 나타내는 조선사람의 사유활동과 관련되어있다.

조선어에서는 움직임의 섬세한 특징들을 부사로 얼마든지 표현할수 있으나 영어에서는 많은 경우 그것들을 영어포함어동사로 대치하고있다. 그러므로 조영번역에서는 우리 말 부사의 의미를 그대로 표현할수 있는 영어동사를 정확히 선택하여야 한다.

례: 나는 그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였다.

I grieved over his death.

우의 실례에서는 동사 grieve(몹시 슬퍼하다)에 내포되어있는 《몹시》라는 수식성의 의미를 살려서 영어의 표현수법에 맞게 번역하였다.

조선어부사의 섬세한 의미를 정확히 나

타내기 위해서는 우선 영어의 뜻같은 동사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번역하여야 한다.

우리 말 부사의 개념에서 기본표식은 같고 부차적인 표식에서 다른 단어들이 동의어계열을 이루고있듯이 영어의 동사에도 그러한 동의어계열의 단어들이 많다.

어느 언어에서나 동의어계열의 단어들이 있게 되는것은 객관적인 현상들을 그대로 표현하기 위한 언어적요구와 관련되어 있으며 그것이 생겨나는 과정은 언어마다 다르다.

우리 말에서 동의어계열의 단어들은 상징 부사나 일부 동사에서 이루어지고있다.

실례로 《하하, 호호, 해해, 히히, 허허》 등의 상징부사들, 《빨강다, 빨그스름하다, 빨그스레하다, 빨경다, 빨그스레하다, 빨그스름하다》 등의 형용사들, 《해죽거리다, 히죽거리다, 싱글거리다, 병글거리다, 꺾꺾거리다, 깔깔거리다》 등의 동사들은 다 섬세한 의미적차이를 가지는 뜻같은말들이다.

우리 말의 동의어계열의 단어들은 대체로 음향학적인 소리빛갈의 차이를 리용하여 만들어지고있다.

이와 반면에 영어에는 포함동사나 명사에서 동의어계열의 단어들이 발달되어 있다.

특히 영어포합동사들가운데는 수식성의 의미에서 미세한 차이로 서로 구분될뿐 아니라 과정성의 의미에서 공통성을 가지고 하나로 묶이우는 동의어계열의 단어들이 매우 많다. 영어포합동사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단어들은 소리빛갈의 차이를 리용한것이 아니기때문에 단어자체의 섬세한 의미적차이로 구분될뿐이다.

실례로 《마시다》의 개념적의미를 나타내는 영어포합동사들인 gulf(꿀꺽꿀꺽 마시다), guzzle(많이 마시다), nip(조금씩 마시다), sup(홀쭉홀쭉 들이마시다), sip(홀쭉홀쭉 마시다), quaff(꿀꺽꿀꺽 마시다), swill(쭉 들이

마시다), buzz(술을 다 마시다), bub(술을 조금씩 계속 마시다), tippie(홀쭉홀쭉 마시다), carouse(술을 잔뜩 마시다), washsail(흠뻑 마시다), partake(홀쭉 마셔버리다) 등을 들수 있다.

조영번역에서는 조선어뜻같은말 부사와 영어뜻같은말 동사를 대응시키면 등가적인 단어들을 쉽게 찾아낼수 있다.

례: 소년은 그 종이를 쥐고 거기에 써여 있는 내용을 힐끗 보더니 환성을 올렸다.

The boy took the paper, and no sooner had he glanced at its contents, than he uttered an exclamation of joyful surprise.

조선어부사의 섬세한 의미를 정확히 나타내기 위해서는 또한 수식성의 측면에서 다의적인 영어동사들을 옹계 리용하여야 한다.

영어포합어동사들은 대부분 수식적인 의미에서 다의성을 가지므로 그 매개의 의미를 잘 구별하여 리용하면 조선어부사의 섬세한 의미를 나타낼수 있다.

례: 그는 공포로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She was shivering her lips with fear.

우의 실례에 쓰인 동사 shiver는 《바르르》, 《오슬오슬》, 《풀럭풀럭》이라는 부사의 의미와 《떨다》라는 과정성의 의미를 함께 나타내고있다. 이처럼 수식적인 의미에서 다의성을 가지는 영어동사들을 조선어부사의 섬세한 의미에 맞게 효과적으로 리용하면 간결한 문장구조로 원문의 의미적등가를 보장할수 있다.

셋째로, 조선어에 쓰이고있는 부사의외의 수식어들을 영어포합어동사로 대응시켜 번역하여야 한다.

조선어에서는 움직임을 꾸며주는 수식성이 형용사, 동명사 등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때로는 단어결합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러한 조선어의 수식적표현을 그대로

영어단어에 대응시키면 영어문장이 필요이상 길어질뿐아니라 의미에서 등가성을 보장할수 없다. 그러므로 조선어수식어들을 영어포함어동사로 대응시키는 방향에서 번역하여야 한다.

례: 우리는 문고리를 잡고 대문을 알가당왈가당 흔들었다.

We took the handle of the gate and rattled it.

대원들은 분노로 이를 부득부득 갈았다.

Soldiers gritted their teeth with

rage.

우의 실례에서는 조선어에 해당하는 수식적인 의미를 영어단어로 1:1대응시키지 않고 영어포함어동사 **rattle**, **grit**를 리용하여 문장구조의 간결성을 보장하면서도 표현의 형상성을 높여주었다.

우리는 앞으로 영어동사구성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있으며 많이 쓰이고있는 영어포함어동사들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학생들이 강성국가건설에 써먹을수 있는 외국어를 소유하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